

기고

단순한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양 일 열

경남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경감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신고된 경남 지역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319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025년 568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 하는 폭행·상해가 여전히 높은 비율

며, 학교폭력 가피해자 면담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남 도내 83명이 배치돼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홍보활동을 비롯해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선도제도와 연계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선정된 학교 전 학급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교육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을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소년 진흥법 제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범죄 예방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 입학

경제인칼럼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우리 사회가 완만한 경사의 고령화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면, 우리 농촌은 이미 깎아지른 듯 가파른 '고령화의 절벽' 앞에 서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율은 69.8%에 달하며 그 추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영농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종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생의 삶터와의 작별이자 당장 직면하게 될 노후 소득 공백에 대한 생존의 고민과 직결된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농업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농업의 미래를 잇는 현명한 선택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2024년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퇴직금'이 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는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사업 도입 이후 2년간 532명의 농업인에게 13억 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우수한 농지 234ha는 다시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84세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양 방식에 따라 넉넉한 혜택을 제공한다. 농지를 매도하고 영농을 은퇴할 시에는 1ha당 연 6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분할 지급받거나, 최대 4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를 당장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청년농업인에게 임

대한 뒤 은퇴할 시에는 1ha당 연 48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은퇴직불금과 농지연금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어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며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는 연속 영농'이라는 다소 엄격한 자격요건이었다. 실제로 경남 함양의 한 농업인은 40년간 농사를 지었음에도 뇌졸중으로 인한 최근 7년간의 영농 중단 때문에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잠시 영농을 중단했던 고령농업인들이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올해 4월 1일부터 사업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최근 10년 연속'이 아닌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낮추었다. 과거에 잠시 공백이 있었다라도 평생 농업에 헌신하였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은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미래'를, 청년농업인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 고령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청년들의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